

2022 추계 대동제 성황리 마무리

강다운 기자 ekdms200202@khu.ac.kr

가을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희야: 경희의 밤, 경희로운 BOMB’을,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MASTERPEACE: Ready, Set, Play’를 개최했다.

가을 대동제를 맞아 양 캠퍼스(양캠)에는 여러 공연과 행사가 마련됐다. 캠퍼스 곳곳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 부스, 셀프 촬영한 사진을 네 컷으로 즉석 인화해주는 경희네컷 부스, 푸드트

럭 등으로 꾸며졌다.

국제캠은 26일 폭죽 쇼를 시작으로 가을 대동제의 막을 열었다. 폭죽 쇼와 함께 중앙도서관 건물 외벽에는 디지털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됐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스탬프 투어’를 기획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념상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인 무대인 멀티미디어교육관 앞 대운동장은 ▲재학생 공연 ▲중앙동아리 공연 ▲E-sports 대회 ▲태권도학과 시범단 공연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공연 ▲응원단 공연으로 장식됐다. 재학생 공연은 ‘KHU-ON SHOW’라는 장기자랑

무대로 진행돼 총 12팀이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뽐냈다. 이어 초청 연예인으로 26일 ▲카더가든 ▲다이 나믹 듀오, 27일 ▲G-Park ▲사이먼 도미닉, 28일 ▲다비치 ▲볼빨간 사춘기가 무대를 빛냈다.

서울캠은 ‘운동회’라는 콘셉트에 맞춰 서울캠 내 단과대학을 청/백팀으로 나눠 게임을 진행했다. 사흘간 ▲박 터트리기 ▲단체줄넘기 ▲피구 ▲골든벨 게임을 진행한 결과 청팀 650점, 백팀 500점으로 청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추후 최종 우승팀인 청팀에 속한 단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해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노천극장을 메인 무대로 ▲재학생 공연 ▲중앙동아리 공연 ▲학군단 공연 ▲태권도학과 시범단 공연 ▲응원단 공연이 펼쳐졌다. 초청 연예인으로서는 28일 ▲IT'ZY ▲10cm ▲재만 ▲픽보이, 29일 ▲

규현 ▲타이거JK&윤미래&비지 ▲JUN.K ▲잔나비, 30일 ▲다이 나믹 듀오 ▲윤하 ▲폴킴 ▲경서 ▲정유진의 무대가 이어졌다.

28일 진행된 재학생 공연은 댄스 경연 대회로 치러졌다. ‘우리들의 학창 시절에 발매된 곡을 재현 혹은 리메이크해 추억을 새롭게 상기시킬 수 있는 무대’라는 콘셉트로 총 6팀이 경연했다. 우승팀은 서울캠 총학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 투표로 정해졌다. 총 394표로 우승을 차지한 ‘어금니’ 팀은 우승 상금 20만 원을 받으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준 팀원들도 수고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응원단 공연을 했던 서울캠 응원단 조예은(경영학 2021) 단장은 “32년의 역사를 가진 응원잔치가 코로나19로 3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

을 봐주신 학우분, 외부인들이 하나둘 경희대를 외쳐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국제캠 대동제를 기획한 국제캠 총학 권예성(건축공학 2018) 집행본부장은 “2학기는 대면 축제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참여’가 가장 큰 키워드였다”며 “추계 대동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인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총학생회장 출마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희 학생 사회의 복원’과 ‘마스터피스 개최’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표했다. 이어 “축제기획단장과 축제기획단, 총학생회 집행부, 자원봉사단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서정연하게 축제를 즐겨주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학교 농구부 4명 프로 지명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박희원 기자 rxxbfjxy@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 선수 4명이 프로팀 유니폼을 입는다.

9월 2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 KBL(한국농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농구부 선수 4명이 프로 구단에 지명됐다. 지명된 선수는 고찬혁(스포츠지도학 2020), 박민채(스포츠지도학 2019), 인승찬(스포츠지도학 2020), 조승원(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다.

고 선수는 1라운드 9순위로 안양 KGC 인삼공사에, 박 선수는 2라운드 5순위로 서울 삼성 썬더스에 지명됐다. 인 선수는 2라운드 8순위로, 조 선수는 3라운드 7순위로 각각 원주 DB 프로미와 고양 캐럿 점퍼스에 지명됐다. 올해 3학년 시즌을 마친 고 선수와 인 선수는 대학 4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진출을 선언하는 ‘얼리 엔트리’를 통해 프로 조기 진출에 성공했다.

1라운드에 지명된 고 선수는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U-리그)에서 득점 순위 2위(평균 21.2점)를 기록했다. 고 선수는 김동준(스포츠지도학 2018,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선수의 졸업 이후 득



우리학교 농구부 4명의 선수가 2022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사진=KBL 제공)

점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학교의 성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학교 선수가 1라운드에서 지명된 것은 지난 2016년 안양 KGC 인삼공사의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안양 KGC 인삼공사) 선수 이후 6년 만이다.

박 선수는 올해 U-리그에서 평균 어시스트 10.1개로 U-리그 최초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박 선수는 농구부 주장과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으며 강점인 정확한 패스를 살려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인 선수는 195.9cm의 장신으로 농구부에서 파워 포워드와 센터를 합친 빅맨 포지션을 담당했다. 골밑 플레이와 빠른 스피드는 U-리

그에서 빛을 발했다. 프로에서는 3번(스몰포워드)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조 선수의 장점은 속공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일대일 능력에 강점을 지녀 농구부에서 가드를 담당했지만 빠른 스피드로 득점에도 기여했다.

고 선수는 “1년 먼저 프로 체제와 농구를 배우고 싶었다”며 “가고 싶었던 안양 KGC에 가게 돼 좋고 배울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슈팅 가드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며 “안양 KGC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인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박민채 선수 또한 “어렸을 때부

터 꿈꾸던 프로선수가 돼 행복하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 생각해 또 다른 목표를 세워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목표를 묻자 “삼성 썬더스의 은희석 감독님 체제에 적응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선수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드래프트는 10명의 얼리 엔트리로 역대 최대 타이였으며 10명 중 7명이 프로구단에 선택됐다. 올해 드래프트 지명물은 신청자 42명 중 25명이 구단의 선택을 받아 59.5%를 기록했다. 선수 등록을 마친 신인선수들은 빠르면 10월 1일에 열리는 ‘2022 MG새마을금고 KBL 컵대회’에 출전한다.

▶1면에서 이어짐

총학은 “앞선 두 가지 세척 외에도 ‘회의진행세척’ 혹은 ‘기록물관리세척’ 등 세부시행세척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학생회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자치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 신설의 경우 ‘학우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의 구체화’와 같이 자치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총학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뿐만 아니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대표자가 대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싶다”며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춘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의 학생회칙이 현실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TF팀 구성이 완료된 이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고 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총학생회칙은 본 회의 운영에 있어 가장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총학생회칙 개정은 학생자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이어 “TF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듣고 싶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총학생회칙 개정